

## 온리 워치를 위한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유니크 피스

블랑팡(Blancpain)은 2001 년 이래 근위축증을 위한 모나코 협회(Monaco Association against Muscular Dystrophy (AMM))를 후원하고 있으며, 올해도 제 8 회 온리 워치와 함께 한다. 이번에 블랑팡은 2019 년 11 월 9 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자선 경매를 위해 특별 제작한,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유니크 피스를 선보인다.

1953 년 처음 런칭한 피프티 패덤즈(Fifty Fathoms)는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였다. 전 세계 몇몇 큰 규모 해군 부대의 잠수 공작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장비 중 필수적인 요소로 빠른 시간 내에 자리잡기 시작했다. 수중 임무를 위해 피프티 패덤즈 모델을 착용한 첫 부대는 프랑스 군이었다. 그리고 1960 년대 독일의 분데스마린(Bundesmarine)을 포함한 또다른 최정예 부대들이 그 뒤를 이었다. 독일 부대는 전문 다이빙 장비를 제작하고 마케팅하는 기업인 바라쿠다를 통해 이를 공급받았다. 바라쿠다는 군대를 위해 고안한 시계 이외에도 직사각 형태의 투-톤 아워 마커, 빛을 발하는 화이트 페인팅 바늘, 높은 가독성을 자랑하는 3 시 방향 날짜 디스플레이를 갖춘 독특한 스타일의 민간용 모델도 독일 시장에 소개했다. 이 시리즈 중 일부 피스는 당시 다이버들에게 큰 인기를 끈 트로피컬-타입(tropical-type) 러버 스트랩을 갖추고 있었는데,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높은 내구성으로 특히 사랑받았다.

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포 온리워치(Fifty Fathoms Barakuda for Only Watch)는 1960 년대 후반 소개된 이 타임피스의 미학적 코드를 충실히 재해석했고, 한편으로는 블랑팡의 오랜 워치메이킹 경험에서 비롯된 혁신적인 기술들을 담아냈다. 블랙 다이얼 위에는 바늘, 베젤과 마찬가지로 블루 컬러를 내는 슈퍼-루비노바®로 코팅한 커다란 화이트 아워 마커를 놓았다. 연필 형태(pencil-shaped) 바늘은 화이트 래커로 칠했고, 초침은 가장자리를 밝은 블루로 처리했으며, 오리지널 모델의 주된 요소였던 날짜는 다시 커다란 창에서 발견할 수 있다. 블랑팡은 이러한 빈티지적 특징에 2003 년 브랜드에서 처음 공개한 혁신적 디테일인 스크래치 방지 돔 사파이어 인서트와 함께 라이트 블루 눈금을 가미한 단방향 베젤을 결합했다. 유니크 피스의 스틸 케이스는 300m 방수 가능하며, 피프티 패덤즈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고수하는 40mm 사이즈로 선보인다. 두 개의 배럴을 갖춘 1151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는데, 스포티한 기능의 시계라고 해서 하이엔드 피니싱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.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이 하이엔드 피니싱을 감상할 수 있으며, 또한 블랑팡 로고와 함께 “Only Watch” 글자를 인그레이빙한 로터도 발견할 수 있다. 이 로터는 컷 아웃 디테일을 보여주는데 마치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의 앤티크

워치를 연상시킨다. 지금은 쉽게 보기 힘든 이 디자인은 과거 무브먼트를 잠재적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로터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었다.

과거 역사적 모델과 동일한 트로피컬 러버 스트랩을 매치한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포 온리 워치는 빈티지한 디자인과 진화한 기술력의 완벽한 결합을 형상화하고 있다.